

표준화 논단

ITU 제 48 차 이사회와 향후전망

서 보 현 박사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서 론
2. WTDC 자문회의
3. 제48차 이사회
 - 3.1. 사무총장의 기초연설
 - 3.2. ITU 전략정책 수립 및 이사회 작업방법 개선
 - 3.3. 개발분야
 - 3.4. 인사분야
 - 3.5. 재무분야
 - 3.6. 이스라엘의 ITU 협약위반 진상조사위원회
 - 3.7. '94 교토 전권위원회의 선거관련 준비
 - 3.8. 기타 의제
4. 평가 및 전망

1. 서론

작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회의에서는 니스전권위원회회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ITU 구조조정작업의 대미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의결과와 주된 의미는 급변하는 국제전기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헌장/협약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분야별 전문체제(전파분야, 표준화분야, 개발분야)와 기본임무를 재조정하는 기반정비작업이 1단계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전권위원회회의 이후의 후속단계에서는 새로운 조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운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수뇌부(사무총장, 이사회)의 전략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기능별 부문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전략정책수립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나아갈 때 비로소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ITU 본부건물에서 개최된 금번 제48차 이사회는 이러한 중간과도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제를 검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ITU의 구조조정을 담고 있는 새로운 헌장과 협약은 원칙적으로 1994년 7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ITU 구조 및 중추활동에 관한 개정조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금년 3월1일부터 잠정적용하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Res.1,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회의부터는 제47차 회의까지 사용하던 회의명칭인 '관리이사회

(Administrative Council)'대신 '이사회(Council)'를 사용하게 된다. 즉, 기존의 관리이사회 의 기능이 단순히 제한적인 의미의 관리 측면에 있었음에 비하여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전권위원회회의와 각 부문의 연계기능, 예산 및 비용에 대한 계획 및 감독 등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회의명칭을 개칭한 것이며 이는 금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ITU헌장 제10조).

2. WTDC 자문회의

금번 이사회가 개최되기 직전 이틀동안(6.18~19),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Consultative Meeting for the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 WTDC/94)가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및 ITU본부건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문가 회의에는 우리나라등 27개국 주관청에서 40인이 참석하고, 국제기구 9기관, 사업체 1개기관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94년 3월21일~29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의 예비의제를 확정하고, 사전 준비회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WTDC/94의 잠정의제결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9개의 항목으로 산만하게 제안되었으나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중점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재분류하였으며, 초기항목 각각에 대한 각주설명안은 단순참조용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기의 항목은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 재분류되었다. : (1) 전기통신발전현황의 평가, (2) 2000년대의 전세계적 목적과 목표, (3)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접근방법, (4) 실행프로그램('94-'98 프로그램 포함). 또한, 회의 막바지에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4개 항목에

추가하여 '최빈국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WTDC/94 Rev. 2 참조).

처음으로 개최되는 WTDC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갖게되는 준비회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전기통신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 BDT)의 재량으로 타분야 회의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 93년 9월말과 94년 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제48차 이사회

WTDC자문회의에 이어 개최된 제48차 이사회에는 43개 이사국중 42개국에서 153명이 참석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독립하여 불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체신부 통신협력단 이종순 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체신부, 외무부, 한국통신,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참석하였다. 금번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주요의제로는 ITU 전략정책수립,

개발분야 재원조달문제, ITU 재무규칙 개정문제, '94년도 예산 및 '92년도 지출승인, 이사회 업무 수행방법 개선보고, 이스라엘의 ITU 협약위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계속 여부, '94교토 전권위원회의 선거관련 준비, 제49차 이사회 일정 등 관련사항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ITU 전략정책수립 등 주요의제 및 개발분야, 인사분야, 재무분야의 주요쟁점 및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회의전체동향을 통하여 예상되는 향후전망 및 몇가지 권고사항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사회회의의 진행은 절차규칙의 관행대로 본회의(Plenary Meeting), 재정, 인사, 개발을 다루는 3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되어, 본회의에서는 일반의제와 3개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본회의 의장은 규정 에 의하여 전년도 회기의 본회의 부의장이 의장직을 승계한 것이며, 각 위원회의 의장은 최근 몇년간 동일인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금번회의 의장단 구성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48차 이사회회의 의장단 구성

구 분	의 장	부 의 장
본 회 의	Sanchez Valle Juan 스페인 전기통신총국장	Mbaye Souleymant 세네갈 체신부 국제협력국장
제 1 위원회 (재 정)	Gagne Pierre 캐나다 국제통신국장	Mohr Ulrich 독일 체신부 국제협력국장
제 2 위원회 (인 사)	Al-Basheer Sami 사우디 체신부 국제협력국장	Mirski Krastjo 불가리아 전기통신위원회 부의장
제 3 위원회 (개 발)	Vignon Honore 베닌 체신부 우전국장	Yusoff Mohamed 말레이시아 체신부 전기통신국장

3.1 사무총장의 기초연설

사무총장 Tarjanne는 회의 첫날 본회의의

기초연설을 통하여 작년 추가전권위원회의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전기통신환경변화에 ITU가 적극대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ITU의 위상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략정책수립이 긴요함을 역설하고, ITU 구조개편시행에 따라 전파통신분야, 표준화분야, 개발분야의 3개분야 각각의 전략정책수립도 이에 병행하여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니스전권위원회의 이후에 전개된 ITU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개최될 제1차 세계전파통신회의(제네바, 1993. 11. 15~19), 제1차 전파통신총회(제네바, 1993. 11. 8~16), 제1차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 1994. 3. 21~29), 1994년 전권위원회의(교토, 1994. 9. 19~10. 14) 등 주요회의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무총장이 역설한 전략정책수립의 내용은 전체적인 차원과 각분야에서 전개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각분야에 관한 사항은 결국 회원참여방식과 작업방법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해석되며 이는 3개분야의 국장들이 보인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TU의 운영개선은 민간기관,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참여방식과 연결되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정책의 초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94년 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주요 현안으로 남게 된다.

3.2 ITU 전략정책수립 및 이사회 작업방법개선

ITU 전략/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금번 이사회에서 설정하고 49차 이사회(1994)에서 구체안을 확정하여 교토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키로 결정하였는데, ITU 전략정책수립 기본방향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관청뿐만 아니라 민간통신사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증진
- 개발분야는 재원조달정책, 최빈국에 대한 특

별지원, 투자고려사항, 국제협력, 인적자원관리 등을 중심으로 전략정책 수립

- 표준화분야는 표준설정과정에 정부주관청외 표준관련기관에서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전파분야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파관련회의 및 수시 개최되는 연구반의 활동을 통해 전략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등 기본방향 검토 예정

이상의 내용은 결국 3개분야의 국장들이 설명하였듯이 주요 전문기능을 담당하는 각분야에서 주관청(Members)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주관청이외의 기관(members)의 회원참여확대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과도 연결되는 문제로서 정부간 기구로서의 ITU의 지위 및 성격에 관한 논의와 의구심도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members의 참여강화를 수공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위상 및 방식은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ITU 이사회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논의가 차기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주된 골자는 이사회 구조 및 기능 재정립, 회의기간단축 및 절차규칙 개정과 같은 운영방법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작업반의 활동을 통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안을 확정하여 교토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3.3 개발분야

개발분야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94), 개발분야의 재원조달문제, 아랍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의 합동회의개최여부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WTDC-94에 관해서는 주요의제로서 앞에서 설명한 자문회의를 기초로 하여 개발분야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등을 WTDC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2000년대의 목표정립과 '90년대 중반이후 시기('94~'98)의 실행계획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개발분야의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등 개도국 대다수는 UNDP의 지원이 매년 감소추세임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에 대처하는 ITU의 지원활동이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실효성있는 구체적 재원조달방안과 정책방향의 정립을 요구하였다. BDT국장으로 작년 추가전권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선임된 지와탐푸(Ziwatampu)씨는 UNDP의 지원감소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처해 나아가기 위하여 ITU개발분야 회원기관의 참여확대 및 각국의 자발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특히 새로 발족한 개발분야의 회원참여는 곧 개발분야에 대한 일정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통신분야 주요 각기관에 회원참여를 촉구하는 요청이 곧 오리라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회원분담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회의의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초안에는 아프리카지역개발회의와 아랍지역개발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과 정책수립이 바람직함을 강조하면서 통합개최안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아랍지역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지역국가들과 함께 개발회의를 개최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고려한 입장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최빈국이 가장 많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사무소지원, 추가직원배치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에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선

진국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예산부담의 전체조정,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3.4 인사분야

인사분야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 2개외국어능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BDT직책의 연장문제, ○ D2직급의 임용도입문제, ○ 여성의 전문직 임용확대문제 등을 들 수 있다. ITU직원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2개외국어능력을 갖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 ITU의 공식용어가 모국어인 국가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일본, 독일 등은 각 회원국에 대한 공평한 취급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하였다. 현행 BDT직책의 연장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개도국은 현재 개도국에 개설된 지역사무소의 운영이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 주된 원인이 지역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이 2년기간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촉구하였으나 다수 선진국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WTDC-94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현행 ITU 직제상 선출직을 제외하고 최상위 직급인 D2직급의 임용도입문제에 관해서는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어느직책에 임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였다. 여성의 전문직 임용확대문제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여성대표는 현재 ITU의 직원중 하위 일반직(General)에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상위 전문직(Professional)에는 그비율이 극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ITU사무총국의 인사국장은 ITU의 전문직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제기구와는 달리 일반적인 행정업무, 사무업무를 수행할 자

보다는 전기통신분야의 기술적 전문능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전문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현행 전문직 임용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를 답변하자 어느 국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5 재무분야

재무분야에 관한 논의사항에는 인사분야, 개발분야에 관한 사항이 중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으나 여기서는 회원국분담금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무규칙의 개정문제, '94년 예산 및 분담규모 확정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회원국분담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레나다, 잠비아, 쿠바 등 1단위이하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회원국이 분담금의 하향조정을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앞에 열거한 국가를 포함한 일부국가는 요청한 사유가 하향조정의 요건에 부합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리투아니아와 유고 등의 경우에는 UN

이 설정한 최빈국기준 및 ITU 제네바헌장규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러시아가 현재 30단위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구소련의 연방체로 인한 신생공화국의 신규참가등을 이유로 28단위를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둘째,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을 기초로 하여 2년 단위 및 ITU 각분야별 예산 편성을 골자로 하는 신재무관리시스템에 따른 재무규칙 개정문제에 관하여는 재정검토작업의 분량 및 복잡성, 검토시간의 제약 등을 이유로 구체내용에 관하여는 금번 이사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금년 9월15일까지 이사국들이 재무규칙 초안에 대한 제안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금년 11월말(11. 22~11. 24)에 재무규칙작업반 추가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여 '95년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총예산 및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표 2〉 ITU '94년도 총예산 및 분담금

항 목	금 액	비 고
'94년도 총예산	: 139,975,000 SFr	('93년 대비 2.94% 증가)
1단위 분담금	: 319,200 SFr	('93년도 대비 2.77% 인상)
한국정부 분담금	: 1,596,000 SFr	5단위 × 319,200SFr (약 8억8천만원)

3.6 이스라엘의 ITU 협약위반 진상조사 위원회

'90년 제45차 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의 ITU 협약 위반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최소 5개국이상 참여조건으로) 참가의사를 표명한 국가가 거의 없어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년과 같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재개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브루키나파소, 파키스탄, 모로코, 세네갈, 인도네시아, 중국이 지지발언을 하였다. 미국은 이 문제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ITU

에서 다를 사항이 아님을 강력 주장하였으며, 사무총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참여의사를 각국 주관청에 계속 타진하고 구성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으로 신속히 종결되었다.

이 문제는 '90년, '91년 회기 당시에는 심각한 의제중의 하나였으나 금번 회기에는 예년에 비하여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단하게 종결되었다. 이는 그간의 중동지역의 상황변화로 사우디와 미국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간접적으로 감지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3.7 '94 교토 전권위원회의 선거관련 준비

차기 전권위원회의의 개최당사국인 일본은 회의기간이 5주에서 4주간으로 개최기간이 단축된 회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선거관련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일부국가는 다수 신생국가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이사국수, 지역의 구분기준, ITU 간부의 선출방식등이 민감하고 주요하다는 입장에서 사전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사무총장이 각 이사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이사회에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권위원회의 일정이 촉박한 현실과 일본의 회의준비 및 사무총장의 제안이 모두 일리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작업반활동에 이를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토회의 이전의 사전준비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교토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UPU총회의 서울개최와 필라코리아 '94 세계우표전시회에 대한 적극동참을 촉구하였다.

3.8 기타의제

기타의제로서 제49차 이사회 일정확정, 세계

전기통신의 날 주제선정, ITU 건물신축계획에 관한 내용, VGE(Voluntary Group of Experts : 전파관리에 관한 자발적 전문가그룹) 활동에 대한 참여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차기 이사회는 교토전권위원회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완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 금번이사회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몇가지 주요현안에 대한 작업이 많은점 등을 감안하여 회의기간을 통상적인 회기기간인 2주보다 2일 단축시키려고했던 금번 회기와는 대조적으로 2주에 2일을 추가연장하도록 합의하여 '94. 5. 2~5. 17기간동안 개최된다. 이외에도 차기이사회의 주요의제로서는 세계전기통신의 날 주제로서 1994년의 주제는 '전기통신과 문화'이며, 1995년도의 주제는 '전기통신과 환경'이 제안되었다. ITU건물의 신축계획안은 아직 계획단계의 차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정당화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VGE의 작업활동은 현재까지 5차회의가 열렸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의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초 결정한 보고서 완료의 기한을 연장하여 내년도 차기 이사회에서 WRC-95의 의제로 검토심의될 예정이다. 수정된 계획일정으로는 금년 10월에 제6차회의가 있고, 내년 2월과 3월에 걸쳐 마지막 7차 최종확정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차기이사회와 교토전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또한 '94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역별 VGE 설명회(VGE-information meetings)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로 ITU의 향후 주요회의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3〉 ITU의 향후 주요회의 일정계획(1993-1997)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3	ITU-TS 12...29 ITU-R 6.....5	VGE5 15...24	BR/BDT REG SEM 1...5 WTSC 1...12 ITU-R 24.....30		AS-RTDC 10...15 AS-TELECOM 17...22 ITU-TS 20.....19	C93 21.....2 ITU-TS 1.....16 ITU-R 17...18 1...11			ITU-R Block 7.....5 BR/BDT REG SEM 20...24	BR/BDT REG SEM 18...22 ITU-TS	RA 8.....16 WRC 15...19 ITU-R 22...23	RRB 6...7
1994	ITU-R 24.....4	ITU-R CPG WTDC 21...29 VGE7 23.....4	ITU-R 1...25 RRB	AF-TCOM 25...29	C94 2...13	ITU-R	ITU-TD	VGE-INF+ REG SEM	PP-94(4) 19.....14 RRB		BR-SEM 14...18 VGE-INF+ REG SEM	
1995	RRB	VGE-INF+ REG SEMAF-RTDC	VGE-INF+ REG SEM or AF ME-RTDC ...ITU-R... RRBITU-TDITU-TS	ITU-R CPG	ITU-R	ITU-R	RRB		TELECOM 3...11 RA+WRC95 16..... ...ITU-R... RRBITU-TDITU-TS			
1996	RRB	ITU-R CPG	AM-RTDC+ AM-TCOM ...ITU-R... RRBITU-TSITU-TD		ITU-R	ITU-R	RRB		BR-SEM	...WTSC...AR-RTDC...ITU-R... RRBITU-TD		
1997	RRB	AS-RTDC+AS-T.COM	RRB	RRB	ITU-R CPG	ITU-R	RRB		EU-RTDC+EU-T.COM RRBITU-TSITU-R...		RA+WRC97	

[주요약어]

- ITU-TS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tudy groups
- ITU-R : Radiocommunication Task Groups or Working Parties
- ITU-TD :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tudy group meetings
- WTSC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 WTDC :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 RRB : Radio Regulations Board
- C : Council
- REG SEM : BR/BDT Regional Seminar
- RA : Radiocommunication Assembly
- WRC :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3. 평가 및 전망

ITU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추가전권위원회의를 통하여 국제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조정된 신ITU의 주요골조는 기존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온 회원국 주관청(Members)의 참여에 더하여 민간영역의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기관등을 주축으로 하는 회원(member)을 ITU 활동에 효과적으로 확대참여시키고 작업방법을 개선시킬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상업적 성격의 기관의 위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파분야, 표준분야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향하는 많은 사항은 현재 국내TTA를 중심으로 각분야 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보다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이의 통합조정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조직 및 작업방법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분야의 경우도 전파분야, 표준화분야와 마찬가지로 회원참여 협조요청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도국의 개발지원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이는 개발분야의 회원분담금 확충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의 분야에 비하여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약한 이 분야에 대한 참여확대는 상대적으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국내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일시에 다수기관이 제각각의 판단으로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일정기간 단위로 국내전체차원의 총분담금이 증액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사료된다.

차기전권위원회의를 목적에 둔 제49차 이사회는 선거관련 기준 및 절차의 사전준비 등 많

은 현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다수 신생 국가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지역구분기준, 이사국수, 간부선출방식 등이 민감한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제전파규칙의 개정을 위하여 수년간 계속된 VGE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제도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차기 이사회에서는 VGE의 작업내용이 완결되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번 이사회에서도 예년과 같이 수시로 ITU 주요간부, 각국 대표와 관련업무협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의 관리이사회와 추가전권위원회의에서 각각 아태지역국가대표, 아프리카 지역국가대표에 대한 초청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에는 중동지역대표와 동유럽지역대표를 초청하여 국내통신사업을 소개하고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협의중에 러시아가 이미 국내통신시장에서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사업투자도 허용하여 많은 유럽기업체들이 이미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국제통신회의에서 회의참가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대표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분야의 국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금번회기중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례로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지역의 통신주관청 고위층들과의 많은 접촉이 필요한데 그동안 제네바 사무소차원에서는 접촉이 쉽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러한 회담을 이용하여 많은 주관청 대표들과의 직접 협의할 기회를 가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업무협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